



4면

학생체합단 유치 '맞손'

# 전주매일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음 3월 6일) 제32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중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년 2길 6번지

## 도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실현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범

먹거리정책 동반자 역할

시군 간 잉여·부족품목

수급조절 등 현장중심 지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국주영은 전북도 의회 의장,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실현을 선도할 광역형 컨트롤타워인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오은미 도의원, 전북 먹거리연대 조성근 집행위원장, 한국여성소비자정보센터 김보름 소장, 14개 시군 부시장 및 14개 시·군 급식센터장, 생산농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하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범을 응원했다.

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 시군 간 격차 해소와 센터 간 교류 활성화 등 광역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하게 됐다. 이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1센터 3팀(먹거리기획팀, 학교·공공급식팀, 교류협력팀)으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한다.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단순 물류기능을 배제하고 시군 간 잉여·부족품목 수급조절, 시군센터의 역량강화 및 시군 간 연계·협력지원 등 도 및 시군 먹거리 정책을 실행하는 현장 중심적 지원조직이다.

여기에 더해 전북도는 2022년부터 광역형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북형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오는 12월 시군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광역형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은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공공형 관계시장은 확대되는 추세이나, 시군별 공급·소비자 및 추진정도에 큰 편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먹거리가 지역에 우선 공급되도록 14개 시군 먹거리정책의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도민 먹거리 보장과 가족·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정책적 배려 대상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전북만의 차별화된 모델"이라며, "연 5,000억원 규모의 먹거리 관계시장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겸인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흥겨운 리듬에 맞추다'

제20회 전북 청소년 동아리 경진(댄스)성료

11개 팀 참여 무대 위서 멋진 춤사위 선보여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회장 김승곤)이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주매일신문이 후원한 제20회 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댄스 부문)가 지난 22일 오후 4~6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5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화보 10면> 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김승곤 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회장, 김숙희 전주시체육회 홀라합회 회장, 김선희 예인무용학원 원장, 대회 참가 선수 및 지도자·가족·친구 등이 참석했다. 김숙희 회장과 김선희 원장은 심사위원에 나섰다. 송미령 예원예술대학교 한지호형 디자인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경연에 참가한 선수들은 천상, power, ad댄스, lock, 어뮤즈댄스, 에프엠, 방하린, 메리폴드, 조은세, 최송화, 딜라이트 등 총 11개 팀(개인 참가자 포함)으로 이들은 무대 위에서 댄스음악의 리듬에 맞춰 멋진 춤사위를 보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에프엠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천상이 최우수상을, 어뮤즈댄스가 우수상을 수상받았으며, lock은 장려상을 수상받았다. 김승곤 회장은 환영사에서 "매년 열리는 경진대회에서 올해도 많은 참가자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참가자들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받은 에프엠과 천상은 올 하반기에 열릴 '전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진출 자격을 얻어 전국 각지에서 올라 댄스팀들과 경연을 벌이게 된다. /김재훈 기자

### 임상규 신임 전북도 행정부지사

## "도민 행복, 전북 발전 일조"

특자도 관련 "실무 담당 경험 살려 성공적 출범 이끌 것"

24일 부임한 임상규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도민 행복과 전북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행안부에서 근무할 당시, 특별자치도 업무 실무직장을 맡아서 특별자치도 업무를 잘 안다"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관련 정책 추진 속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 부지사는 원주 출신으로 고산고와 현양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4년 행정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국가보훈처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임 부지사는 최근 실시된 행안부 인사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해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전보됐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 선정... 전국 유일

전북도에 전국 유일한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 유치 등 산업 기반 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4일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준비한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8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난 유형에 특화된 재난안전 제

2026년까지 국비 90억 포함 총 180억원 확보  
침수 관련 성능 시험·평가·인증 플랫폼 구축

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제품·기술 연구개발, 인증 판로개척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북을 포함한 전국 7개 시·도(울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경남 전북)가 참여했다. 공모 선정으로 전북도는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시험동 내에

침수재해 발생 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침수안전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는 배수펌프 내구·성능 시험장비, 침수안전 제품 설계 프로그램 등의 수방장비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한다.

2차년도에는 가상 성능시험 시뮬레이터, 차수제품 성능평가 등 모사 침수 환경 내 성능·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3차년도에는 준실제품 및 침수관련 제품 내환경성 평가 인증 지원, 4차년도에는 침수안전 제품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본 사업 추진으로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이 각각 341억원, 137억원에 이르고 178명의 재난 전문인력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난안전기술 선진화와 핵심기업 집적화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기업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훈 기자

